

20대 여성 태권도사범의 삶과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반은아*(백석대학교 겸임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대 여성 태권도사범의 삶과 경험을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태권도와의 만남부터 태권도사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자전적 이야기를 통찰력 있게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성 태권도인의 삶을 이해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대적 배경이 비슷한 세 명의 20대 여성 태권도사범을 의도적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선정하였으며, 연구 절차는 Clandinin과 Connelly(2000)가 제시한 5단계로 진행하여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태권도와 함께 끊임없는 자아성찰과 정체감 확립을 통해 성장하고 있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대학생활은 자신의 전문성과 인생의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 태권도사범으로서의 직무능력은 인정받고 있으나 성차별과 젠더 갈등에 대한 자기방어 기제로 상황 회피와 의존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태권도는 삶 그 자체의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여성 태권도인의 삶을 기대하고 있었다.

주제어 : 내러티브 탐구, 20대 여성 태권도사범, 삶과 경험

* baneuna@daum.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 211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태권도는 올림픽 핵심종목으로 위상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가치는 물론 사회, 문화, 교육적 가치에서 인정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태권도에 대해 대한태권도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살펴보면 “태권도는 남·여·노·소 어떤 사람이나 제한 없이 아무런 무기를 지니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손과 발을 사용해 방어와 공격의 기술을 연마하여 심신의 단련을 통해 인간다운 길을 걷도록 하는 무도이자 스포츠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대한태권도협회, 2021).

전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 태권도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며, 글로벌 스포츠로 자리매김했지만 과거의 스포츠가 남성들만이 향유하는 문화로서 여성들의 참여 기회가 극도로 제한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자가 태권도를 처음 시작한 1990년대의 태권도는 남성 중심의 무도 수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는 다소 과격한 운동으로 인식되어 여성의 수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로 인해 유년시절 태권도를 배우고 싶었으나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로 오랫동안 배우지 못하다가 긴 설득 끝에 초등학교 6학년인 13세부터 태권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태권도의 매력에 푹 빠져 대학까지 진학하게 되었다. 대학은 말 그대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신세계와 같았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유단자들과의 대학 생활은 태권도의 다양함과 위대함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으며, 미성숙한 청소년기처럼 혼란스러운 자아정체성을 경험하며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배우는 시기기도 했다. 특히 태권도 시범단에 입단하면서 남성들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는 문화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고 대학 졸업 후에는 여성의 성역할 규범에 대한 고민으로 결혼과 동시에 모든 활동을 중단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지금까지도 여전히 선수, 지도자, 경영자, 연구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30년을 여성 태권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과 경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여성태권도인의 삶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찾아보았다. 또한 수많은 여성 태권도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유기적이고 연속적이며, 복합적인 관계 안에서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성 태권도 심판의 삶을 다룬 전난희(2017), 여성 태권도 연구자의 삶을 다룬 박성언, 김우석(2019), 여성 태권도 지도자의 사회적 현실을 다룬 김남수, 김은숙(2017), 김서경(2014), 소유정, 곽정현(2018), 여성 겨루기 선수의 은퇴에 관한 강남원, 노재귀(2013)등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여성 태권도인은 직업에 대한 높은 소명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들과의 필연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단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임신과 출산이라는 성역할에 대한 책임으로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였으며,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전문 태권도인으로 성장해가는 어려운 과정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확립해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강남원과 노재귀(2013)를 제외한 선행연구의 대상이 30대에서 50대로 한정되어 있으며, 연구범위가 현재의 삶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간 속에서 축적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여성 태권도인의 삶과 경험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태권도가 팔목한 만한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더불어 여성 태권도인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활발한 대외 활동과 태권도 주요 기관의 핵심적인 역할을 통해 태권도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점에서 선행연구에서 밝혀내지 못한 대상의 경험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제 40대가 된 연구자는 수많은 태권도인들과 만나며 삶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중에서 20대 여성 태권도사범들과의 대화는 나의 자화상처럼 닮아 있어서 그녀

들의 이야기에 빠져들곤 하였다. 다양한 생활체육 중의 하나인 태권도를 선택하여 태권도학과에 진학한 후 태권도 지도자가 된 나와 그녀들의 삶에서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존재하였고 결국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 퍼즐을 완성해 나아가듯 자신만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자아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대 여성 태권도사범을 대상으로 태권도와의 만남부터 태권도사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자전적 이야기를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내러티브 탐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밝힌 남성 중심적 사고에 의한 차별과 편견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와 속성을 파악하고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결혼과 출산 등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태권도 사회에 첫발을 딛고 성장해 나아가는 20대 여성 태권도인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성 태권도인의 권익과 처우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태권도와의 만남 : 태권도를 시작한 계기와 수련과정의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태권도 전공자의 길 : 전공을 선택한 계기와 대학생활의 경험은 어떠한가?

셋째, 여성 태권도사범의 삶 : 사범생활의 경험은 어떠한가?

넷째, 삶의 의미 : 태권도의 의미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대 여성 태권도사범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때 내러티브 탐구자는 경험을 탐구하는 사람으로 참여자의 경험을 시간성, 사회성, 장소의 3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분석하고 해석하며 이해하여야 한다(홍영숙, 2020). 이에 연구자는 주제 경험과 관련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연구 참여자의 경험 중에서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탐구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협력적 관계 형성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 경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연구 참여자 선정에 앞서서 누구를 표본으로 추출할 것인가, 어떤 형태로 표본을 추출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한다(김동학, 2013; 임미화, 조성균, 2021; Creswell, 2002).

현재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연구자는 평소 본 도장 사범으로 재직 중인 A씨와 태권도와 관련된 삶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며 여성 태권도인으로 비슷한 경험과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우리는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성과 개인적·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사회성 그리고 비슷한 공간을 의미하는 장소의 공통요인으로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 이에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가 가능하며, 태권도를 통한 다양한 인생 경험에서 광범위한 이야기가 탐구되거나 이질적인 대화로 소통의 어려움이 없는 시대적 배경이 비슷한 세 명의 20대 여성 태권도사범을 의도적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태권도 사범으로 재직 중인 20대 여성 가운데 대학에서 태권

도를 전공하였으며, 태권도 유관기관에서 시범단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3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나이	시범 경력	사범 경력
연구 참여자 A	20대 후반	국제 기관(15~18)	3년
연구 참여자 B	20대 후반	국내 기관(19~현재)	3년
연구 참여자 C	20대 후반	국제 기관(15~18)	5년

2. 자료 수집 및 절차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이 태권도를 시작한 계기부터 대학시절과 현재 사범으로 재직하고 있는 시점까지의 경험을 탐구하고 해석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 방법을 활용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구조화 또는 비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원하는 데이터를 끌어내고 이를 분석하는 기술이다(임미화, 조성균, 2021; Schwartz & Jerry, 1997).

자료 수집을 위한 인터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화상회의로 널리 쓰이는 줌 커뮤니케이션 플랫폼(Zoom communication platform)을 활용하여 2021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참여자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율한 후 1회씩 약 90분가량 진행되었다. 내러티브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연스런 분위기를 유도하여 연구 참여자가 솔직한 이야기를 편안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시간성, 사회성, 장소의 3차원적 내러티브 공간으로 함께 들어가서 적극적인 경청자가 되어 연구 참여자가 충분히 경험한 것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녹취자료 수집을 위해 핸드폰 녹음기를 활용하였으며, 내러티브의 특성에 따라 메모노트, 표정, 말투, 행동에 담겨진 의미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전사과정에서는 어법에 맞지 않더라도 최대한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 절차는 Clandinin과 Connelly(2000)가 제시한 1단계 - 현장으로 들어가기, 2단계 -

현장에 존재하기, 3단계 - 현장텍스트 작성하기, 4단계 - 현장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로, 5단계 - 연구텍스트 작성하기로 진행하였다.

3. 자료 분석

내러티브 탐구에서 자료의 분석은 자료를 읽고 또 읽음으로써 자료에 담긴 줄거리와 주제에서 내러티브적인 요소들을 찾아내고 이야기들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즉 수집된 자료들을 내러티브하게 코딩(narratively code)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잠정적 텍스트를 써나가는 과정이라 설명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을 반복적으로 듣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연구 텍스트로 구성하였다. 자료를 들으면서 연구문제에 부합되는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를 성찰하는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4.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성

본 연구는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를 통해서 전사된 자료들을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검토하였으며, 내러티브 연구 경험이 있는 1명의 대학교수, 2명의 체육학전공 박사와 함께 전문가 협의(peer debriefing)를 통해서 원자료를 검토하면서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내용과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 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익명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Ⅲ. 이야기하기

본 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라 말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이야기하기가 시작된다. 여성 태권도사범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세 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어떠한 경험이 그들을 태권도사범의 길로 인도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1. 태권도와의 만남

태권도 참여 동기는 어떠한 욕구에 의해 일어났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편익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연구 참여자 A의 수련 동기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부모님의 추천으로 시작되었으며, 뛰어 노는 걸 좋아하는 활발한 성격의 연구 참여자 B는 대다수의 수련생이 태권도를 시작하는 동기와 유사하게 어린 시절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숙한 태권도를 어머니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 C는 아버지가 태권도 관장이라는 환경적 영향으로 어린 시절 태권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태권도를 접하게 되었다. 그녀들의 태권도와의 만남은 국내 태권도 수련생이 일반적으로 유년기와 학령기에 시작하는 것과 같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서로 상이한 수련 동기에 의해 태권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저는 10살 때 부모님의 추천으로 태권도를 접하게 되었고 처음에 태권도를 접하게 된 계기는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였지만 겁이 많았습니다. 제가 슈퍼 가는 것도 힘들어 할 만큼 겁이 많아서 두려움을 없애고자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연구 참여자 A).

워낙 뛰어 노는 걸 좋아했는데 집 앞에 태권도장이 있어서 엄마가 한번 다녀볼래 하셔서 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7살 때 시작해서 꾸준히 다니다가 중학교 때 관장님이 겨루기를 하셨던 분이셔서 학교 팀에서 운동하는 걸 제안하셨어요. 엄

마가 하고 싶으면 하라고 적극 밀어주셔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 팀에서 운동을 하게 되었어요(연구 참여자 B).

저는 6살 때부터 태권도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아빠께서 관장님이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장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서 ‘태권도를 배운다’ 라는 생각보다 놀이 같은 느낌으로 태권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연구 참여자 C).

즐거움, 행복, 흥미 등의 긍정적인 정서는 스포츠 참여를 촉진시키고 운동 지속에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태권도장에서 오랜 시간 수련을 해온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태권도를 시작한 연구 참여자 A는 자신의 내적 성장에 대한 경험을 통해 태권도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연구 참여자 B는 수련의 위계질서를 나타내며 수련의 정도를 가늠하는 수단인 띠가 태권도장에 가는 즐거움과 수련을 지속하게 하는 상징적 의미가 되었다. 또한 시범으로 지역에서 이미 유명했던 태권도장을 다닌 연구 참여자 C는 시범을 함께하며 보낸 사람들과의 시간이 유년시절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다.

저는 잘하고 싶은 욕심이 많아서 조금만 못해도 상처를 잘 받고 눈물이 많은 성격이었는데 태권도를 배우면서 동작 하나가 안된다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계속 해서 해야 할 목표와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안된다고 슬퍼하지 않네!’ 스스로 내가 강해지고 있다는 생각들이 태권도를 좋아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연구 참여자 A).

유치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꾸준히 했으니까 2품부터 검정띠를 주잖아요. 그러면 앞에 앉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항상 앞에서 인사하는 자리에 거기 앉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일찍 갔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연구 참여자 B).

제가 초등학생 때 도장에 오빠들이 많았거든요. 지역에서 행사가 열리면 항상 오빠들과 시범을 했던 기억이 있었고, 여름이랑 겨울에 저희 집 마당과 회관을 빌려서 시범을 크게 했는데 그때 기억이 많이 남아 있어요(연구 참여자 C).

청소년기가 되면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위한 생리적 과정인 월경(menstruation)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여성 고유의 발달적 현상이지만 신체적·정신적·심리적 불안과 통증을 동반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신체적·생리적 변화로 인하여 연구 참여자 A는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예민함과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연구 참여자 B는 남성 중심적인 집단에서 여성만의 특별한 경험을 이해받지 못해 정서적 소외감을 느끼며 어쩔 수 없이 참고 운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야기 하였다.

마법(생리)이라는 신체변화가 생기면서 저는 엉덩이에 굉장히 민감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누가 제 엉덩이를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일부러 도복 바지 속에 레깅스를 입고 그 위에 또 속바지를 입고 그 위에 도복 바지를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연구 참여자 A).

여자로서 생리를 남자들은 이해 못하잖아요. 생리를 할 때는 배도 아프고 몸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선배들한테 사실대로 말을 못하니까 참고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 친구가 너무 아파서 오빠들한테 말을 했어요. 그때 보고 체계가 2학년 오빠들한테 이야기 하고 3학년 오빠들한테 이야기 하고 코치님께도 이야기를 해야 했는데 친구가 2학년 오빠한테 말하자 ‘그게 얼마나 아픈데 운동을 못나 오냐’ 며 운동 나오라고 했고, 자기들끼리 그 이야기를 서로 하는걸 듣고 저도 배가 아프고 정말 운동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참고 했어요(연구 참여자 B).

2. 태권도 전공자의 길

대학 진학과 학과 선택은 자신의 미래 직업을 결정하고 삶을 설계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를 고민하며 선택의 기로에서 큰 갈등 없이 태권도학과를 결정한 연구 참여자 A는 여러 차례 진학 과정에서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결국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았다. 겨루기 선수였던 연구 참여자 B는 잦은 부상과 체중감량으로 선수의 길을 포기하고 장교의 꿈을 꾸었지만 대학생생활에서 품새와 시범을 배우며 결국 태권도의 또 다른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도장에서 태권도를 시작한 연구 참여자 C는 태권도 전공자의 길 역시 아버지가 출강하시는 대학을 자연스럽게 선택하여 많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였지만 반면에 수동적인 자신의 삶의 태도를 아쉬워하기도 하였다.

진학에 있어서는 태권도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당연히 태권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대학이든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수시 때 큰 벽에 부딪혀서 좌절을 심하게 했습니다. 대학을 가자라는 일념 하에 정시를 준비 했는데 너무 떨어져서 실기를 굉장히 못 봤습니다. 채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교육원에 들어가서 편입을 준비할 것인가 기로에 섰습니다. 결국 평생교육원을 선택했고 운이 좋게도 좋은 코치님을 만나서 태권도 기술, 공연, 행정 등의 다양한 경험을 했고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에도 합격합니다. 이후 편입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 반성과 겸손을 배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연구 참여자 A).

고등학교 때는 오로지 메달 그게 제일 컸고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가야겠다는 목표는 없었어요. 너무 많이 다쳤고 체중 감량도 힘들어서 더 이상 운동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학생군사교육단이 있는 대학을 지원해서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시범단에 들어가라고 하셔서 의미 없이 6개월 보내고 나와서 자유롭게 지나다 친구가 있는 품새단에 들어가게 되어 배우게 되었는데 그때 선배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대회를 나가다 보니까 흥미가 생겼어요 이후에 다시 시범단에서 운동을 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코치님이 제가 겨루기

선수였던 걸 알고 계셔서 다방향 격파를 많이 지도해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 주고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그렇게 시범단에 스며들었어요(연구 참여자 B).

저는 미용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사실 좋아하는게 많은데 제가 진로를 고민할 때는 내가 지금까지 꾸준히 해온게 태권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어디를 가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큰 고민 없이 아버지가 출강하시던 대학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었어요. 대학 입학 후 창단된 시범단을 동기들과 이끌어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한편으로는 제 인생에서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졸업할 때까지도 수동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무엇인가 결정하기에 앞서서 제가 생각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이 없어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시간들이 아쉽게 느껴져요(연구 참여자 C).

대학 시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학 생활은 자기주도적인 삶을 계획하고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대인관계와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기이다. 대학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남성 중심의 사고가 강한 단체 생활 속에서 마찰과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며, 학생선수로 대회와 학업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처음 학교에 갔을 때 체벌도 가능했었고 규제도 심했습니다. 치마도 입고 싶고 화장도 하고 싶고 머리도 풀고 싶은데 1학년 때는 특히 규제가 심했습니다. 벌을 받을 때 치마를 입으면 어려움이 있으니 매일 바지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반기 싫은 관심을 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화장을 하면 왜 화장을 했는지, 조금만 차려입으면 왜 그렇게 입고 왔는지 남자 선배들의 과도한 관심과 말투가 상처가 되곤 하였습니다(연구 참여자 A).

중요한 시범이 있을 때는 밤을 새서 운동을 하고 주말에도 대회를 다녀온 적도 많았어요. 그래도 수업은 들어가야 하고 학점관리도 해야 해서 그런 점들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오전에는 전공 수업을 듣고 오후에 운동을 하는 방식이어서 가능하면 오전에 모든 수업을 듣도록 해야 하는데 조기 마감되어 오후 수업을 신청하면 선배들이 ‘왜 오후 수업 듣냐’ 라며 핀잔을 들어야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교양수업도 운동시간 때문에 오전에 있는 관심 없는 수업을 선택해야 하는게 싫었어요(연구 참여자 B).

학점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수강신청도 동계훈련 마치고 남은 과목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가 정신차려보니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더 많은걸 배우지 못하고 졸업해서 아쉬움이 컸어요(연구 참여자 C).

3. 여성 태권도사범의 삶

진로 결정을 위해서 진로 정체감이 정립되어 있어야만 성공적인 직업 선택과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미 대학에서는 다양한 취업 관련 교과과정과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 습득 및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연구 참여자 A는 산업체 수업을 통해 관심분야 업종에서 다양한 실습을 경험한 후 진로를 결정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B는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한 중국 교환학생 모집 프로그램을 통한 태권도 지도 경험이 직업 선택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학에 산업체 수업을 들으면서 여성 지도자가 몇 십명 수련생을 지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다가와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후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도장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도장을 가보니 전국에 맛집처럼 지도자에 따라서 태권도장의 모습이 달라서 나도 내 색깔을 가지고 태권도장을 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 이런 호기심이 들어서 진로를 결정

하게 되었습니다(연구 참여자 A).

산학협력단에서 우연히 중국 교환학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신청해서 다녀왔어요. 그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워낙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했고 품새와 시범을 배우고 나서 뭔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무기가 많아졌구나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떤 직업이든 아이들과 무엇인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직업이 사범이잖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연구 참여자 B).

성역할(gender role)은 개인이 속한 사회가 생물학적 성에 따라 요구하는 기대 행동으로 여성 태권도사범에 대한 모성적 이미지와 소통능력이 강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이 사회 도처에서 발생하면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여성 태권도사범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 지도자로서 수련생과의 정서적 교감과 소통을 통해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특성을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면에 남자 사범님과 자신을 다르게 대하거나 힘겨루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적극적인 해결보다 상황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칭찬해주고 토닥여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자유가 남자사범님보다 크니까 그런 감정적인 소통이 잘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일드한 남자 친구들은 지도자로서도 품어줘야 하고 엄마 같은 마음으로도 품어줘야 되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되게 당황스럽고 어떤 경우에는 정면 대결을 하게 돼서 서로 상처가 됐던 부분들도 있어서 화장실에서 눈물도 흘치고 그랬습니다(연구 참여자 A).

여자 사범님한테는 특히 여자 수련생들이 자기 이야기를 조금 더 편하게 하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것까지 이야기 해주고 제가 어린 시절 말하지 못했던 신체적

변화나 생리적인 민감한 이야기들도요. 아이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어서 좋고 특히 여자 친구들은 여자 사범님과 이야기 하는걸 좋아해서 저도 여자 친구들이 다가오면 너무 좋아요. 반대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은 제가 조금 어리고 여자 사범님이라서 까불기도 하고 대들기도 해서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요. 남자 사범님 앞에서는 장난을 치거나 까불지 않는데 저한테는 말과 행동이 달라서 그런 점이 힘들었어요(연구 참여자 B).

저희 도장은 친언니와 제가 지도를 하다보니까 여성 지도자만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님들께서 안심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때로는 사춘기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저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는 기강을 잡아줄 수 있는 남자 사범님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긴 해요(연구 참여자 C).

4. 태권도를 통한 삶의 경험과 의미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공통된 경험과 의미가 존재하기도 하고 각자 다른 경험과 다른 해석을 토대로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아간다. 어린 시절 수많은 운동 중에서 태권도를 선택하고 태권도 학과에 진학하여 태권도사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태권도와 함께 성장하고 때로는 좌절하며 자신만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과연 태권도를 통한 삶의 다양한 경험들은 그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가끔은 저에게 절망도 안겨줘서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고 있는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태권도는 결국 저를 성장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도란 저에게 ‘너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 미션을 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자극도 주고 칭찬도 주고 그 안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계속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 인 것 같습니다(연구 참여자 A).

어려웠던 것도 많았고 좋았던 것도 많았는데 모든게 태권도를 통해서 경험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나를 만든게 태권도가 아닐까 앞으로 나를 만들어 갈게 태권도 아닐까 생각해요. 태권도는 나에게 없으면 안될..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하는.. 힘든데 좋아요. 태권도가 엄청 범위가 크니까 양파처럼 까도 까도 끝이 없는 것처럼 재미있어서 계속 알아가고 싶고 성장하고 싶어요. 태권도를 통해서 성장했고 태권도 때문에 철도 많이 든거 같아요(연구 참여자 B).

태권도가 저를 보다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겁도 많고 눈물도 많고 의지도 약했는데 지금의 저는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운동을 힘들게 한 경험이 있으니까 당장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태권도를 안했으면 큰일 날 뻔 했어요(연구 참여자 C).

마지막으로 아직 미혼인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대학 캠퍼스 커플로 오랜 기간 사랑을 키워온 연구 참여자 A와 B는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성친구와의 미래에 대해 앞으로의 자기계발, 신체적 변화, 성역할에 대한 갈등 등의 현실적인 고민과 지도자라는 전문 직업이 자신에게 강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현재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은 연구 참여자 C는 미래의 배우자, 자녀, 태권도장 운영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지 않았다.

사실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면 지금처럼 몸을 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없었는데 출산 후에 몸을 움직이는데 ‘동작을 할 수 있을까, 힘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리적인 부분에서 걱정이 되긴 합니

다. 그리고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대학원을 마치고 결혼을 해야 할지 학업 중간에 결혼을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같이 도장을 하고 싶은데 같이 도장을 하면 여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마음으로 아직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연구 참여자 A).

결혼하면 대학원도 가고 싶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싶고 그런데 만약 같이 차리게 되면 대학원도 다닐 생각이요 유치부를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아기를 꼭 낳을 거라서 태권도사범은 전문직이고 애기를 가졌다고 직장을 잃는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잖아요. 내가 출산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못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기를 낳아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연구 참여자 B).

저는 나중에 태권도장은 하긴 할건데 배우자가 태권도를 하는 사람일지 아닐지 몰라서 결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를 낳으면 그만큼 아이한테 투자를 하고 잘 키워야 하니까 지금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지만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때 돼서 생각해 보려고요. 결혼, 출산 이런 미래의 일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연구 참여자 C).

IV. 다시 이야기하기

본 연구는 나의 삶에 대한 자문자답을 통해 성장과 실패의 경험과 의미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자는 태권도를 통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삶을 공유해 나가고 있다. 그중에서 20대 여성 태권도사범들과의 대화는 나의 과거이고 현재이며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 나갈 미래처럼 느껴졌다. 다시 이야기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와 결론 그리고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 결과와 연구자의 의견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1. 태권도와의 만남 : 태권도와 함께 성장하다.

어린 시절의 태권도 수련은 신체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발달 등을 포함한 성격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양대승, 1992; 이은희, 2000, 정현도, 2018)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의 태권도 수련 시기와 동기는 서로 상이했지만 태권도 수련을 통해 얻은 자신감, 사회성, 리더십, 정서적 행복감 등은 명확하게 그녀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청소년기 월경에 대한 경험은 불안감, 수치심, 정서적 소외감, 상처 등을 주었지만 여성 태권도사범으로 특히 동성 수련생과의 정서적 교감과 소통을 통해 자신들의 성장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수련생을 성장시키고 자신들도 끊임없이 태권도와 함께 성장해 나아가고 있었다.

2. 태권도 전공자의 길 : 인생의 방향을 탐색하다.

20대는 심리적인 동요를 경험하고 극복하는 단계이며, 사회적 책임과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초기단계로 인식 되고 있다(Arnett, 2004a; Cobb, 2001). 연구 참여자들에게 대학 과정 속에서 겪는 학업, 운동, 대인관계, 진로, 가족의 지원 등의 다양한 경험은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순조롭지 않았던 진학 과정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되었으며, 오랜 선수생활로 인생의 정체를 맞이하였으나 태권도의 다양한 종목 경험이 태권도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고 자신만

의 무기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가족의 든든한 지원은 자신의 적성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3. 여성 태권도사범의 삶 : 좋지만 쉽지만은 않은 길을 가다.

김종길(2017)은 학교에서 다양한 정보습득과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자율성과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성공적인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시절 인턴십 수업과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진로 탐색 후 태권도사범의 길을 선택하였다. 이는 태권도학과 학생들은 태권도 관련 진로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정국현, 정락희, 장권(2014)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는 점에서 대학 생활에서 다양한 진로 활동의 참여기회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사범이라는 직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생물학적 특성인 성(性)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차이가 아닌 남성과 여성에 따른 차별로 공격 받았을 때 느끼는 좌절감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는 태권도계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편향된 성인식에 대한 결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여성 스스로도 자신을 약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도록 자립적 의지를 키워 나갈 필요가 있다.

4. 태권도를 통한 삶의 경험과 의미 : 전문직 여성으로 우뚝 서다.

내러티브 탐구는 경험을 이해하는 방법이다(홍영숙, 2020). 우리는 매일 다양한 경험을 하지만 모든 경험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 특별한 경험이 남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경험은 태권도로 채워져 있다. 생의 첫 경험들을 축적해 나아가는 체험적 시간인 유년기와 학령기에 태권도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태권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삶에서 태권도는 인생 그 자체로써

의 의미가 있었다. 또한 태권도사범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범을 전문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높은 직업의식에서 발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생애주기로 볼 때 20대는 학업과 취업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결혼, 출산, 양육 등의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의 가족을 형성하여 사회 재생산의 기능을 준비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Arnett, 2007). 과거 기성세대와 달리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롭게 성장한 Z세대인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선택 할 수 있는 일로 여기고 있으며,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설렘, 궁금증과 기대 등의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20대 여성 태권도사범을 대상으로 자전적 이야기에 담긴 삶의 다양한 경험을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내러티브 탐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태권도 수련 시기와 동기는 서로 상이했지만 태권도를 수련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은 신체발달과 기술향상은 물론 내적 성장을 통해 끊임 없는 자아성찰과 정체감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에서 학업과 시범단 활동을 병행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으나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태권도사범으로서의 전문성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으며, 진로 탐색을 통한 개인의 관심과 강점을 발견하는 과정은 결국 성공적인 직업 선택과 직업 만족도를 높이는 경험의 시간이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 태권도사범으로서 모성적 이미지와 소통 능력을 강점으로 인식하며 직무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성차별과 젠더 갈등에 대한 자기 방어 기제로 상황 회피와 의존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태권도는 삶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마주하게 될 결혼, 출산 등의 성역할과 대학원 진학, 전문성 강화 등의 자기개발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여성 태권도인의 삶을 기대하고 있었다.

2. 제언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제기되었던 향후 연구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후속 연구가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 수행경험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출생, 진학, 취업 등의 시기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20대 여성 태권도사범을 대상으로 삶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였다. 이후 연령별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여성 태권도인의 삶과 경험적 의미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태권도에 내재된 불평등한 사회 구조적 문제와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모색이 요구되는 바이다.

둘째, 본 연구는 내러티브 연구의 개인적 정당성, 실제적 정당성, 사회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질적 연구가 가지고 있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개인의 경험과 의미가 사회적 관계성에서 규명될 수 있는 큰 범주에서의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자료 도출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남원, 노재귀(2013). 여성 태권도 선수의 은퇴원인과 은퇴준비 및 진로장벽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스포츠학회지**, 11(1), 137-152.
- 김남수, 김은숙(2017). 여성 태권도 지도자의 사회적 현실. **한국체육과학회지**, 26(5), 217-229.
- 김동학(2013). **체육대학 교육경험을 통한 체육전문인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서경(2014). 여성 태권도장 지도자의 교육철학 탐색. **무예연구**, 8(2), 101-119.
- 김종길(2017). **태권도 전공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진로결정 자율성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대한태권도협회(2021). <http://www.koreataekwondo.co.kr>
- 박성언, 김우석(2019). 여성 태권도 연구자의 삶에 관한 고찰. **국기원 태권도연구**, 10(3), 41-55.
- 소유정,곽정현(2018). 여성 태권도지도자의 경력단절과 복직제약에 대한 담론. **국기원 태권도연구**, 9(2), 63-87.
- 양대승(1992). **태권도 수련이 아동기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배경**.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이은희(2000). **태권도 수련이 아동의 생활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임미화, 조성균(2021). 태권도사범으로서의 삶과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무예학회지**, 15(1), 67-92.
- 전난희(2017). 여성 태권도 심판의 삶에 대한 연구. **국기원 태권도연구**, 8(4), 97-126.
- 정국현, 정락희, 장권(2014). 태권도전공 대학생의 졸업 후 진로결정. **스포츠 사이언스**, 31(2), 147-154.

- 정현도(2018). 태권도 수련과 인성교육과의 관련성에 관한 고찰. **한국무예학회**, 12(4), 71-92.
- 홍영숙(2020). 내러티브 논문작성의 실제.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8(3), 7-28.
- Arnett, J. (2004a). "Emerging Adulthood."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51(12): 1-8. 2004b. *Emerging Adulthood*. Oxford University Press.
- Arnett, J. (2007). "Suffering, Selfish, Slackers? Myths and Reality about Emerging Adult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6: 23-29.
- Cobb, N. J. (2001). *Adolescence: Continuity, Change and Diversity*. Houston, TX: Mayfield Publishing Company.
- Creswell, J. W. (2002). *Educational research: Planning, conducting, and evaluating quantitative* (pp. 146-166).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Clandinin, D. J. & Connelly, F. M.(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r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Schwartz, H. & Jerry, J. (1997). *Qualitative Sociology: The Method to the Madness*. New York: The Free Press.

ABSTRACT

A narrative exploration of the life and experiences of a female taekwondo instructor in 20s

Ban, Eun-A(Baekseok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fe and experiences of female Taekwondo instructors in their 20s through an insightful analysis of the autobiographical story from the encounter with Taekwondo to the present and future living of the Taekwondo instru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eople and their treatmen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ree female Taekwondo instructors in their 20s with similar historical backgrounds were selected using a deliberate sampling method. First, the study participants were growing through continuous self-reflection and establishing a sense of identity along with Taekwondo. Second, university life became an important time for research participants to seek their professionalism and direction in life. Third, it was found that the study participants showed a tendency to avoid situations and depend on themselves as a mechanism for self-defense against gender discrimination and gender conflict, although their job abilities as female taekwondo instructors were recognized. Fourth, for the study participants, Taekwondo has meaning in life itself, and they expected the life of a female Taekwondo practitioner to continuously develop.

Key words: narrative exploration, female Taekwondo instructor in 20s, life and experience

논문투고일 : 2022.03.28.

심사일 : 2022.04.18.

심사완료일 : 2022.04.26.